

김지하의 생명론에 나타난 지구 인식과 그 의미* **

이 선 이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김지하의 생명론 가운데 지구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고 여기에 담긴 지구 인식과 그 의미를 읽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김지하의 지구 인식의 논리화 과정을 생명론의 틀 안에서 살펴보고, 이를 라투르와 차크라바르티의 인식과 비교함으로써 김지하의 지구 인식이 가지는 변별점을 규명해 보았다.

생태적 사유를 심화한 김지하의 생명론에는 다음과 같은 지구 인식이 나타난다. 먼저 김지하는 인간생명에 국한된 윤리를 넘어서서 우주생명으로까지 그 시각을 확대하는데 이러한 인식론적 확대과정에서 지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사유의 매개가 되었다. 특히 그는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이론을 창조적으로 재인식하고, 생명을 기(氣)의 흐름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물리적인 지구 인식을 문화 담론의 대상으로 옮겨놓았다. 또한 그는 지구시스템공학적 시각을 수용하면서 인간사회 안에 머물렀던 시각을 확대하여 우주생명론으로 심화해나갔다. 그 결과, 그는 인간을 재개념화하면서 지구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모심'과 '살림'의 지구윤리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김지하의 인식을 라투르와 차크라바르티와 비교해 보면, 라투르와 차크라바르티는 지구와 인간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한 반면 김지하는 지구와 인간을 분리불가능한 관계적 존재로 보고, 지구를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생태윤리적 주체를 강조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김지하의 지구 인식은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나 인류세 담론의 문제의식을 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론적 현재성을 담지하고 있다. 특히 그의 지구 인식은 이성과 감성에 영성을 결합시키고, 사상과 과학과 종교를 융합하고 있다는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75811).

** 이 논문은 제54회 한국시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점에서 분과 중심의 시각을 극복하고 융합과 통합의 시각으로 지구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진다. 지구의 물질성에 영성을 부여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구를 대하면서 지구를 모시고 섬기려는 태도는, 그 자체의 사실성이나 실천성 여부를 떠나서 이성과 과학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지구에 대한 인식을 갱신하고, 현재의 위기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인식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생태윤리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김지하, 지구 인식, 브뤼노 라투르,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지구윤리, 모심, 살림

1. 생태적·지구적·행성적 사유로의 연쇄와 김지하의 생명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중심주의 혹은 인류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은 포스트휴머니즘과 인류세 담론¹⁾을 중심으로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특히 인류 절멸이라는 암담한 예견에 실감을 부여하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현실이 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지구를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자로 브뤼노 라투르와 디페시 차크라바르티를 꼽을 수 있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논자에 속하는 사회학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 1947~2022)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를 가이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전개하였다.²⁾ 또한 시스템과학이나 지질학 분야에서 인류가 지구

1) 인류세(Anthropocene)라는 개념은 인간이 지구적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자라고 보고, 현재의 지질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2000년에 크뤼천과 스토머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1980년대부터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가 비공식적으로 사용했고 1992년에 앤드루 레브킨이 기후 변화에 관한 책에서 인간세(Anthrocen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앨 C. 엘리스, 김용진·박범순 역, 2021:12).

2) 포스트휴머니즘 중에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신유물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이론적 모색은 사변적 실재론, 행위자-연결망 이론, 생기론적 유물론, 객체지향 존재론 등 다양한 개념으로 분화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의 경

의 지질이나 생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임을 인정하는 인류세 개념이 제기되면서, 역사학자 디페시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 1948~현재)는 이러한 인류세 담론을 역사적 시각에서 사유하면서 새로운 지구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과 인류세 담론이 일차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 문화와 자연으로 나누는 이분법이다. 논의의 출발에서는 이 같은 이분법의 원인이 인간중심주의에 있음을 직시하고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점차 논의가 심화되면서 인간이 타자화시킨 동물에서부터 사물로, 더 나아가 물리적 실재로서의 지구로 그 인식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들 비인간을 행위역량을 가진 존재로 재인식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머니즘 논의가 대체로 지구를 물질적 역량을 가진 행위자라는 차원에서 인식을 전개하고 있다면, 인류세 담론에서는 장구한 지구의 변화과정을 강조하며 행위자로서 인류가 갖는 문제를 지적하고 인간의 의식 너머에 있는 지구의 역량을 성찰적으로 탐문하고 있다.

이 같은 지구에 대한 성찰은, 환경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던 기존의 생태적 사유와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한다.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된 생태 담론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감지되는 기후변화를 목도하며 지구적 차원을 인식 대상으로 삼고 논의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³⁾ 하지만 이 논의가 본격화된 데에는 파울 크

계를 허물고 인간에게만 부여했던 행위성(agency)을 비인간 전체와 나누는 존재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하는 이론적 모색을 진행 중이다.(유선우 2021:124-148)

- 3) 지구사(global history)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주로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세계사로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자연사와 인류사의 구분을 넘어선 지구사에 대한 상상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조지형과 김용우가 펴낸 『지구사의 도전』(서해문집, 2010)에는 2009년에 발표되어 논쟁의 대상이 된 인류사와 자연사가 결합된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의 「역사의 기호 : 네가지 테제」라는 논문이 소개되었다.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의 논의에서부터 ‘지구’에 대한 인식은 본격적인 인문학적 사유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그의 저서 『행성시대 역사의 기호』(2023), 『하나의 행성, 서로 다른 세계』(2023), 클라이브 해밀턴의 『인류세』(2018), 시노하라 마사타케의 『인류세의 철학』(2022) 등이 번역되면서 인류세

뤼첸과 스토머가 제안한 인류세 개념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세라는 개념이 제안된 이후, 기존의 생태적 인식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자연을 대상화하는 인간의 사유방식에 대한 전면적 반성이 시작되었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구를 인식하는 지구적 사유가 활발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글로벌화’, ‘글로벌화’라는 용어에 담긴 인간중심적 지구 인식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차크라바르티(2023)는 행성적 사유를 도입하며 지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다.⁴⁾ 여기서 ‘행성적인 것’은 인간의 역사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장대한 지구사(地球史)를 염두에 둔 개념으로, 대지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파악한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구를 인식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이처럼 생태적, 지구적, 행성적 사유는 순차적인 사유의 연쇄를 거치는 가운데 개념적으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의 연쇄를 목도하면서 이 얽힘의 양상을 선구적으로 담론화한 김지하(1941-2022)의 생명론⁵⁾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하는 시인이면서 동시에 반독재 저항운동가이자 새로운 문명사적 이정을 모색한 사상가이다.⁶⁾ 특히 그는 평생 자생적 생명론의 흐름을 심화시키면서 ‘흰 그늘’과 ‘올려’의 예술미학을 담론화하고자 한 미

담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4) 조성환·허남진(2022)에서 서평 형식의 논점 정리가 제출되었다.
- 5) 김지하의 ‘생명’에 대한 사유는 ‘생명사상’, ‘생명철학’, ‘생명학’, ‘생명담론’, ‘우주생명학’ 등으로 명명된다. 이 글에서는 사상이자 실천이자 미학으로 전개된 담론의 다층성과 함께, 논리의 체계화도 어렵다는 점에서 ‘생명론’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 6) 김지하에 대한 연구는 『김지하 그의 문학과 사상』(1985)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김지하 문학을 생명시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홍용희의 「김지하 문학 연구」(1998)를 필두로 김지하 사상의 논리를 생성적 사유로 포착하면서 시세계를 분석한 임동환의 「생성의 사유와 ‘무’의 시학 : 김지하 시세계 연구」(2003)가 제출되면서 가속화되었다. 기존연구는 그의 문학과 사상을 크게 네 층위로 나누어 살피고 있는데 민족·민중문화적 연구, 종교신학적 연구, 일본에서의 김지하 수용사 연구, 생태학적 연구가 그것이다.

학사상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김지하 사상의 열쇳말은 ‘생명’이며, 그는 사상과 시를 통해 생명가치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1972년부터 수감과 출옥을 반복했던 김지하는 1980년 12월에 석방되면서 자신의 사상적 지향을 죽음의 세계에 저항하는 살림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두고 이를 ‘생명’에 대한 사유로 구체화해 나갔다. 그가 평생에 걸쳐 심화해 나간 생명에 대한 사유는 인류의 절멸과 지구에서의 거주를 걱정해야 하는 인류세 시대에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지를 선구적으로 사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0년대 초반부터 김지하의 사유는 미학 쪽으로 관심을 옮기는데, 이러한 미학사상도 생명론과 결합되면서 생명미학을 형성해 나갔다.⁷⁾ 후기에 본격적으로 담론화한 ‘흰 그늘론’, ‘울려론’, ‘산알론’은 그의 생명론이 심화된 예라 할 수 있다.⁸⁾ 이러한 전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 유출, 또 그 핵심인 신령한 창조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직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녹아있는데(2003가:124) 여기에도 생태적 사유가 짙게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수감 중에 싹튼 김지하의 생명론은 대략 50년에 걸쳐 그 사유를 심화시켜간 의미있는 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김지하의 생태에 대한 인식 속에서 지구가 어떻게 사유되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김지하가 지구를 사유하는 방식을 라투르와 차크라바르티의 지구 인식과 비교하면서 그 유사성과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김지하의 지구 인식이 갖는 당대적 의미를 읽어냄으로써 그의 지구 인식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지하의 산문집⁹⁾ 가운데 그의 생태적 사유를 충실하게 읽어낼 수

7) 김지하(1999:5)에서 1990년대 중반에 미학에 집중하여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겠다는 결심을 고백한 바 있다.

8) 김지하는 생존 시에 대략 30여 권에 이르는 시집과 희곡 5편(『김지하전집』(동광, 1991)), 사상을 논한 산문집 40여 권을 출간했다. 하지만 그의 저작은 선집이나 전집 형태로 중복 출간되었기 때문에 김지하의 전체 저작 목록과 이에 대한 정확한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김지하시인추모문화재단추진위원회 편 2022:참조)

있는 『김지하전집』(1-3, 2002), 『생명학』(1-2, 2003), 『흰 그들의 미학을 찾아서』(2005)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II. 김지하의 생태적 사유와 지구 인식

김지하가 문명사적 대전환을 모색하며 생명론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적으로 사유한 현실은 생태파괴라는 환경문제이다.¹⁰⁾ 최제우와 최시형으로 이어진 동학사상과 『주역』을 독창적으로 해석한 김일부의 『정역』, 강증산의 ‘천지공사(天地公事)’, 최한기와 이제마로 이어진 ‘기철학(氣哲學)’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여기에 서양의 종교영성학과 신과학운동의 인식을 결합하며 싹틔운 생명론은, 서구 근대문명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사유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생명론이 제기되었던 당시 국내의 진보담론이 대체로 사회적

-
- 9) 김지하의 산문집은 대략 40권이 출간되었다. 본격적인 산문집인 『밤』(1984)을 필두로 2002년까지 출간된 약 십여 권의 산문에 담긴 사상적 전모는 철학사상, 사회사상, 미학사상으로 나누어 『김지하전집(1-3)』(2002)으로 정리되었다. 전집 출간 이후에도 그는 대략 20권 정도의 산문집을 출간하면서 자신의 사유를 심화해 나갔다. 초기에 발표된 생명에 대한 사유가 변형, 전환, 심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서의 수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전집 출간 이후의 저서들에서는 민족미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강화되면서 과도한 국수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인간, 삶, 세계를 전일적으로 사유하면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유의 여정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사상가로서의 김지하의 면모는 연속성 하에서 파악할 수 있다.
- 10) 김지하의 생태 인식에 대해서는 그의 글쓰기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그가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유했는가를 초점화한 몇몇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인간의 자연 지배를 문제삼으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타자화나 대상화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포착하는 인식방법이나 태도를 중심에 두고 유기체론이나 전일론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생태담론이 확산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지하의 생명론은 생태사상이라는 입장에서 연구되는 흐름이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형권(2000), 문순홍(2006), 홍용희(2007), 이기상(2010), 김난희(2023), 정주아(2024), 황경애(2025) 등이 있다.

변혁을 중심에 두고 이론과 실천을 모색하던 상황에 견주어보면, 그의 생명론은 그 대상을 인간, 삶, 자연으로 확대하면서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변혁의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변혁의 열망을 추동한 문제의식에는 인간이 자연을 착취와 파괴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인간우월주의에 대한 반성이 놓여있다.

우선 김지하의 ‘생명’ 개념은 ‘생태’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맥락과 시기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용어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대동소이했다. 김지하 사상의 원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문인 「남녘땅 뱃노래」(1985)에서부터 ‘생명’은 ‘생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적 변혁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보는 것”(2002가:31)이라고 밝힌다. 생명론의 발아단계에서부터 김지하의 문제의식은 인간·사회·자연이 통합된 ‘지구적 변혁’(2002가:38)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개벽’이라는 용어에 담아내며 ‘후천개벽(後天開闢)’, ‘우주적 대변혁’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의 자생사상을 창조적으로 재의미화하는 사상적 도전을 시도했다.¹¹⁾

그는 ‘생명’을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상정하면서 인간, 자연, 사물 등을 아우르는 만물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포괄성을 통해 인간을 중심에 두는 근대적 인식을 사물과 자연에까지 두루 확대하면서, 이들에게도 주체적 역량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생명’을 만물의 연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유한다. 인간과 비인간 일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연관되어 존재한다고 보는 ‘생명’ 개념은 만물을 개별적 주체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공동주체’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홍용희 2007:83). 이러한 인식은 인간 이외의 다양한 생물

11) 도올 김용옥은 수운은 선천개벽이나 후천개벽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고 ‘다시개벽’이라는 말만 사용했으며, 선천과 후천이라는 용어가 『주역』에서부터 사용된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며 이 용어는 한대의 관방역학(官方易學)인 상수지학(象數之學)에서부터 사용되었다고 본다.(김용옥 2021:35-43 참조)

을 인식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들이 상호연관성을 갖고 존재한다는 생태적 인식과 깊은 유사성을 보인다. 다만 그 대상이 생물을 넘어 무생물까지를 포괄하고 있어서 생태적 인식의 차원을 확대하는 차이를 보일 뿐이다.

둘째, 김지하는 ‘생명’이라는 개념에 종교적이면서 철학적인 인식을 결합한 생태영성학적 성격을 담아내고 있다. ‘생명’의 물질성과 함께 포착되는 정신성은, ‘생명’을 그 속에 신령한 기운을 품고 있는 영성(靈性)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가 생태적 차원과 영성 차원을 결합하여 ‘생태영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과 유사한데(이명호 2024:22), ‘생명’을 만물을 총칭하는 상위개념으로 보고 내적 연관성과 영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 결과이다. 즉 ‘생명’을 물질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실체로 본 것인데, 김지하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을 진화생물학과 연결시켜 논리화한다. 그는 ‘생명’을 자기조직화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확산과 수렴, 질서화와 무질서화, 진화와 순화를 반복생성하면서 인류사이자 지구사를 형성한다고 보면서, 진화생물학을 생명진화론으로 전환해낸다. 생물의 특성이 ‘생명’의 특성으로 전이되면서, ‘생명’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재진화(re-evolution), 확충(amplification)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된다(김지하 2005:266). 여기서 물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정신과 닮은 영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탄생한다. 만물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그 속에 영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관점은 생태영성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¹²⁾ ‘생명’을 물질이자 정신으로 인식하면서 김지하는 물질로만 인식되던 지질과 대기를 ‘기(氣)’의 흐름으로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 전체를 ‘지구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12) 진화생물학과 결합한 생명 개념이 미학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김지하는 살아있는 알이라는 의미의 ‘산알’이라는 용어를 미학적 치유개념으로 활용한다(김지하 2010가, 2010나 참조).

“여기에 산림학, 해양학, 산맥학, 지질학, 대기학 등 지구 단위의 엄청난 학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동양학, 특히 우리나라의 자생풍수, 풍수지리학 등과 결합하지 않으면 그다지 가능성 있는 학문으로 발전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풍수는 똑같은 지질, 토양, 암석, 지하수에 전부 관계합니다만, 맨 안에 심층 기(氣)의 순환을 통해서 가장 요체가 되는 지구 단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구의 심층, 표층의 복잡다양한 경락계 전체를 맑게 정화하는, 높은 차원의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아이론도 지구 내부로부터 지구 위에 있는 대기권, 이렇게 표층, 심층을 모두 들락날락하는 아주 융통성 있는 유기적이고 영적인 새 학문적 전망으로서 풍수와 결합하지 않으면 공중에 떠버리기 때문입니다.”(김지하 2005:266)

그는 서양의 지구 인식에서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 가이아이론¹³⁾도 기(氣)의 흐름이라는 ‘유기적이고 영적인 새 학문적 전망’인 풍수와 결합하지 않으면 피상적이라고 비판한다.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 가이아이론의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대기권을 포함하며 지구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기의 순환’에 주목하는 기철학과 그 표출인 풍수학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현상으로는 물질이지만 심층에는 정신이 감추어져 있다고 보면서, 김지하는 물질과 정신의 합체인 지구를 거대한 기의 순환을 통한 정화시스템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에는 인류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따라서 “예술과 생명과 과학사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김지하 2005:292)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13) 제임스 러브록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가이아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1979년에 이르러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방법을 담은 『가이아』(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의 출간을 시작으로 1988년에는 『가이아의 시대』(The Ages of Gaia: A Biography of Our Living Earth), 2006년에는 『가이아의 복수』(The Revenge of Gaia), 2009년에는 『사라지는 가이아의 얼굴』(The Vanishing Face of Gaia)을 출간하며 가이아이론을 평생 전개시켜 나갔다.

하지만 그가 ‘생명’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려는 이 같은 시각에는,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은 과학담론에서 나오지만 이러한 과학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화이론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¹⁴⁾ 과학과 철학과 종교적 인식이 융합된 그의 지구 인식은, 살아있는 존재를 상호연관된 유기적 관계로 인식하는 생태적 인식과 만물에 영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영성적 시각이 결합된 생태영성학적 시각을 담아낸 일종의 문화이론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지구 인식은 물리적이고 공학적인 관리대상으로 보던 지구를 담론적 구성물로 보는 문화론의 대상으로 옮겨놓고 있다.

셋째, 김지하는(2003:263) 지구를 ‘닫힌 지구’이면서 동시에 ‘열린 지구’로 본다. 지구를 물질과 정신이 결합된 지구생명으로 파악한 그는, 지구가 자기조직화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닫힘과 열림의 이중적 활동을 수행하는 생명주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지구 인식은 기존의 생태학에 대한 비판과도 연관된다. 그는 환경이라는 말은 인간중심주의의 표현이며 유물주의적 지구관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2003:76). 생태라는 용어는 생명 개체나 생명 군집 사이의 생활 관계와 유기물과 무기물 사이의 역동적 상관관계에 관한 학문으로서, 생명계와 무생명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무생물에는 정신이나 영성이 없다고 봄으로써 드러난 질서로 학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한다(2003:77-78). 그가 생물 중심의 ‘생태’에서 무생물을 포함하는 ‘생명’으로 인식을 전환한 것은, 결국 생태라는 용어가 생명체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물질로 구성된 지구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김지하가 지구에 대한 관점이라는 개념을 초점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생명론 전개에는 오늘날 지구시스템공학이 기대고 있는 드러난 질서와 감추어진 질서의 결합인 지구적 관점이 이처럼 깊게 투영되

14) 이런 인식이 인류의 문화적 원형을 찾는 작업으로 표출되면서 인류의 근원적인 미학으로 본 ‘흰 그늘’과 ‘올려’라는 생명미학의 구상으로 이어진다(김지하 2005:215).

어 있다.¹⁵⁾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의 생태적 인식은 다시 ‘우주생명’으로 확대된다. ‘생명’이 사물과 지구를 넘어 무한히 확대가 능하다는 의미에서 그는 ‘우주생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의 사유체계에서 ‘생명’은 ‘지구생명’을 경유하며 ‘우주생명’으로 확대되고, 이처럼 인간과 사회 안에 국한되었던 인식은 지구 인식과 결합되면서 우주적인 생명론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확대 과정에서 우주라는 추상적 차원에 구체적인 실감을 부여하는 것이 지구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김지하의 생명론은 ‘생명’에 대한 ‘모심과 살림의 윤리’를 강조 하는데, 이는 인간이 자연을 외경의 대상이자 자체적인 생명의 질서를 갖춘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연관을 생명윤리로 수용한 결과이다. 김지하는 유럽의 생태 인식에는 자연을 포함한 생명 일반을 모시고 받들고 사귀는 마음이 부재하다고 보면서(2005:257), 그는 ‘모심’의 새 문명을 창조할 인간으로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신인간’ 모델을 제안한다. 그는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타자의 철학에서 주체의 죽음을 선언하는 서양의 지적 흐름을 문제시하면서 주체도 신도 살려내어 둘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휴머니즘, 신인간주의, 우주적 휴머니즘, 이것은 오늘날 인간 문화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사회, 비인격적인 자연 주체와 인간 타자(他者)들을 자기 안에 무수히 생성시키고 포괄하는 이 우주적인 개방적 주체로서의 신인간만이 생태학의 긴 논쟁을 해결합니다.”(김지하 2000가:443)

자연과 문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인간’을 새롭게 재개념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재개

15) 김지하의 지구에 대한 인식은 ‘지기학(至氣學)’을 중심으로 결집되기도 한다. (김지하 1996:101-108)

념화된 ‘신인간’은 인간만을 분리하고 개별화하여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연관성을 전제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을 두루 포괄하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방적 주체’로 ‘타자를 내 안에 끌어안는 주체’는 영성을 내재한 인간으로서 주객합일적 성격을 갖는데, 이는 ‘생명’ 개념을 ‘인간’에도 적용하여 개념적 재구축을 시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모든 사물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봅니다. 천지인(天地人). 하늘, 땅, 사람.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 지구이고, 인은 가운데 낀 사람이다, 이렇게 옛날식으로 말해버리면 간단하죠. 그러나 지금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하느냐? 동학의 수운 최제우 선생이 말하는 천지인은 무엇인가? 좀 다릅니다. 오행(五行)은 우주를 구성하는 상징적 물질입니다. 뭐죠?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 그걸 오행이라고 그러죠? 이 오행의 버리, 이치, 법칙, 논리를 하늘, 천(天)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땅, 지(地)는 뭐냐? 우주물질 구성, 즉 오행의 질료, 재료, 물질, 바탕, 이것이 지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면 인(人)은 무엇일까?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으니가 사람은 그 중간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주물질 구성에서 인이 뭐냐? 기(氣)입니다. 그러면 이 기가 뭐냐? ‘생명’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생명이면 어떤 창조적인 주체죠.”(김지하 2005:102)

여기서 김지하는 ‘인(人)’을 ‘기(氣)’로 보고 있는데, 이때 ‘인’은 생물학적 종으로서 호모사피엔스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천지인에서 ‘인’은 물질 속에서 창조적인 자기조직화를 진행하는 주체이다. 김지하는 이를 ‘창조적 주체’라고 부르며 사물 속에 생명적 기운상태로 흐르고 있다고 파악한다. 물질과 정신과 그 결합으로서의 ‘생명’ 개념에서 물질과 정신을 매개하는 개념이 ‘인(人)’이자 ‘기(氣)’인 것이다. 이처럼 지구생명 안에 내재하는 기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 김지하의 관점은, 자연을 생명을 지닌 생명체로 바라보고 외경감을 갖는 태도를 강조하는 생태적 윤리와 유사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생태윤리와 김지하의 인

식이 갖는 차별점은, 그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의 행위역량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구를 자기 회복력과 갱신력을 가진 신령한 기운의 생명체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구생명을 대하는 태도에는 기의 순환을 모시고 살리는 모심과 함께 병든 지구를 살리려는 살림의 윤리가 요청된다. 그는 현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는 지구생명에 내재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면 치유될 수 있다고 본다. “전 우주적인 자기 회복력과 그 변동과정”(2003:261-262)을 알고 그것을 살려낼 때 이러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지구의 생태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생명을 모시는 ‘모심의 윤리’와 ‘살림의 윤리’가 긴밀하게 연관될 때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지하의 생태적 사유는 생태계 파괴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인간우월주의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촉발되었다. 이러한 생태적 사유를 심화한 생명론은 첫째, 인간생명에 국한된 윤리를 넘어서서 우주생명으로 그 시각을 확대하는데, 이 인식론적 확대과정에서 지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사유의 매개가 되었다. 둘째,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이론을 창조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생명을 기(氣)의 흐름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물리적인 지구 인식을 문화담론의 대상으로 옮겨놓았다. 셋째, 그가 지구시스템 공학적 시각을 수용함에 따라 인간사회 안에 머물렀던 시각을 확대하여 우주생명론을 정립하였다. 넷째, 인간을 재개념화하면서 지구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모심과 살림의 지구윤리를 강조하였다.

Ⅲ. 브뤼노 라투르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 김지하의 지구 인식 비교

김지하의 생명론에 담긴 지구윤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기 위해, 여기서는 브뤼노 라투르와 디페시 차크라바르티가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경유하여 김지하의 인식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세 사람의 지구 인식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개입방식을 비교하는 것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대위법적 독회’라고 부른 사유의 병치와 연결을 통한 의미 읽기로서, 김지하의 생명론이 갖는 현재적 가치를 밝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비인간을 사회학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ANT이론(Actor Network Theory)을 제안한 사회학자 라투르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가이아(Gaia)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전개하면서 지구를 사유하는 방식을 모색하였다. 또한 차크라바르티는 인간의 경험 안에서만 사유되던 지구를 넘어서서 보다 장대한 지구의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지구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지구를 가이아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일종의 시스템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인간의 역사 경험 안에서 포착되는 이중적 시각 갖기를 요청한다. 인간의 역사 경험 안에서 포착하는 지구를 ‘지구적인 것’으로, 인간의 역사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지구를 ‘행성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이 두 차원에서 지구를 인식하자고 제안한다.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김지하 역시 지구를 생명생태계로 인식하면서 물질과 정신이 결합된 결합체인 지구의 심연에는 기(氣)가 순환하고 있는 지구생명이자 생명지구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 세 사람의 지구 인식은, 크게 보면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분법 하에서 우리가 자연의 범주에 가두고 있었던 사물, 물질, 가이아, 지구 등의 비인간 일체를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얽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인간을 포괄하는 자연을 사유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고,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로 명명되는 생태적 위기상황에서 인간의 위치나 인간의 개입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라투르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비인간의 행위역량에 주목한다. 비인간을 행위자로 보는 그의 관점은 사물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면서 사물을 정치적 역량을 지닌 적극적 주체로 인식하게 만든다. ‘사물의 의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논의는 사물이 정치적 주체로 인식되면서 탈인간중심주의적 사회정치학을 가동시킨다. 그는 사물의 행위역량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것들과의 다양한 접촉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학이 사회적인 것들만의 사회학이 아니라 ‘결합의 사회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김환석 2020:25). 특히 그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빈발하자 지금을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로 보고, 거주적합성이라는 차원에서 지구를 인식하며 가이아 개념을 새롭게 조명한다. 제임스 러브록이 지구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자고 제안한 가이아이론에 대해 그는 그동안 인류가 “섭리적 에덴동산”(브뤼노 라투르 2021가:10)으로 인식했던 자연 혹은 지구에 대한 관념을 가이아 이론이 과학적 설명으로 대체했다고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지구를 가이아로 보고 자율조절시스템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지구의 자율조절시스템이 불안정해진 시기에는 새롭게 조정되어야 주장하며 인간의 의식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인식되는 가이아를 ‘가이아 2.0’으로 명명하면서, 그는 인간의 의도적 자각 없이는 자체조절이 가능한 지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드러낸다.(Timothy M. Lenton & Bruno Latour 2018:1066-1068)

그는 우선적으로 가이아가 형이상학적이고 신화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을 비판한다(Bruno Latour 2017:82). 지구가 자기조절의 총체이고 이러한 조절 역량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는 가이아를 생존 혹은 거주가능성을 소유하는 작업과 연결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가이아는 ‘지상적’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모두 ‘지구생활자’라고 본다(브뤼노 라투르 2021나:178). 그러면서 라투르는 가이아란 생존층과 관계한다고 보고 가이아를 임계영역에 있는 일종의 생존막(the thin film of the critical zones)이라고 인식한다(2017:86). 문제는 이 막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이고 인간

의 참여는 이 지점에서 요청된다. 따라서 그는 인간과 비인간이 공동세계를 구성하면서 이를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사물과의 다양한 결합이 현실정치를 ‘물정치(Dingpolitik)’로(브뤼노 라투르 외 2010:273) 이동시키는 것처럼, 가이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구의 오염과 파괴에 대해 감시와 기록을 강화하는 경험을 확산하는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에 반대하면서, 인간과 사물들의 연결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공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인간의 역할은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망을 다양한 층위에서 살피는 깊고 넓은 참여를 모색하는 일이라고 제안한다. 라투르는 가이아로 지칭되는 ‘지구에 묶인 자’로서 인간과 사물이 결합되는 지점을 늘려 나가면 기존의 지구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탄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2017:282-283). 따라서 그의 이론 안에서 인간은 지구라는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능력을 발견하고 인간과 지구 간 상호작용의 연결망을 만들어나가는 생태정치적 주체로 호명된다.

둘째, 현재 가시화되는 지구의 곤경은 지질학적 변화의 주된 행위자인 인류가 원인제공자라는 인식을 담은 개념이 인류세이다. 이 개념을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차크라바르티는, 종래의 철학사가 주목한 세계(world)나 대지(earth)라는 개념과 함께 지구(globe)라는 개념도 인간중심적이라고 보고, 인간적인 관점과 거리를 갖는 ‘행성적(planetary)’ 관점에서 지구를 인식하면서 인간을 탈중심화하고자 한다.¹⁶⁾ 차크라바르티가 행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구 인식에서 강화하려는 점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지구, 즉 지구시스템(Earth system)에 대한 감각이다.¹⁷⁾ 이때 지구시스템은,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 가이아이론으

16) 행성성(planetary)을 제안한 스피박(2017:514)은 “포스트-합리적인 과학에 관한 환영 같은(spectral) 백인의 신화뿐만 아니라, 정령신앙(animism)을 포함하면서도 동일하지는 않은 이름들의 무진장한 분류를 포용하기 위해, 행성-사유(planet-thought)가 드디어 열린다.”고 주장하며 “어머니, 민족, 신, 자연과 같은 어떤 것의 초월적 형상화들”을 “대타성의 이름들”이라 명명하며 대타성을 재사유하자고 제안한다.

17) 『행성시대 역사의 기후』에서는 ‘대지시스템’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로부터 발견되었고, 여러 논의들을 거치면서 재개념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에게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지구를 사유하려는 개념이다. 그는 지구시스템을 다루는 과학을 ‘비인간중심주의의 인간적 버전’으로 보고 이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까지를 포괄하는 단일조절체계로 지구를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이 인식에서 강조되는 것은 ‘거주적합성’이라고 본다(차크라바르티 2023:130-131).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지구시스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행성과 그 행성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지구는 “언제나 그것의 노여움을 예측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대상이라고 본다(차크라바르티 2023:320). 그는 인류가 지구시스템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되었으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면서, 인간의 가지권(可知權)과 비가지권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지구 인식을 담론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차크라바르티는 이중적인 지구 인식이 어떻게 얽혀있는가에 주목한다. 그가 행성적 사유를 도입하면서 지구에 대한 인식을 인간의 역사 너머로까지 확장하고자 의도하지만 그렇다고 행성 지구에 대한 인식이 그가 ‘지구적 사유’라고 부른 인간의 역사 안에서 파악되는 지구 인식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는 지구적인 것이 행성적인 것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지구적인 것이 행성적인 것을 폭로”한다고 말한다(2023:335). 우리가 행성적인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과학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러브록의 비전이 지닌 시적 본성을 인식해야 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인간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지구적인 것과 행성적인 것을 맞세우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현재적 곤경을 직시하면서 인간의 조건에 관한 물음을 통해 새로운 철학적 인간학을 개간하는 작업이다(2023:39). 이 개간 작업은 유럽적 근대화와 다른 역사적

개념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지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경험들에서 행성적 사유를 마주하는 새로운 독회와 함께,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이 둘이 얽힌 역사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외경감(reverence)’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제안한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지구의 역사라는 장구한 시공간을 담은 ‘깊은 역사’ 혹은 ‘깊은 시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상실해 버린 ‘외경감’의 회복과 관계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2023:323).

차크라바르티는 현재 지구윤리로 제안되고 있는 생명애나 상보성과 같은 태도에는 지구를 돌봄의 대상이나 사권의 대상으로 보면서 안정된 상태로 전제해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다. 그러면서 이미 안정된 상태가 아닌 인류세의 시대에는 지구를 두려움의 감정을 수반한 외경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그는 인간이 지구를 사유하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지구에 대한 인간의 감각경험이 확장되기 위한 방법으로 지구와 다른 종에 대한 인간의 외경심 회복을 요청한다. 따라서 그는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을 결합한 윤리주체를 호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김지하는 환경문제에 개입하는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김지하가 생명론을 구성하는 바탕에는 『동경대전』에 수록된 「주문(呪文)」편 가운데 본주문(本呪文)에 해당하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이 주문을 재의미화하면서 ‘모심’과 ‘살림’의 윤리를 생명윤리로 제안한다.¹⁸⁾ 그가 ‘모심’의 대상으로 삼은

18) ‘시(侍)’, 즉 모심이라 함은 안으로 신령(神靈)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이 서로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이고, ‘주(主)’라 함은 존칭하여 부모와 독같이 섬기는 것이며, ‘조화(造化)’라 함은 무위이화(無爲而化)로서, 즉 아무것도 함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활동함으로써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정(定)’이라 함은 그 활동의 덕에 합하여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영세(永世)’라 함은 사람의 평생이요, ‘불망(不忘)’이라 함은 언제나 생각을 두어 잊지 않는다는 뜻이요, ‘만사(萬事)’라 함은 수의 많음이요, ‘지(知)’라 함은 그도를 알아 그 지혜를 받는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이 주문에 대한 김지하의 해석은 『남녘땅 뱃노래』 가운데 「인간의 사회적 성화」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존재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며, 당연히 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김지하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는 ‘신령(神靈)’의 기운을 갖고 있고 이러한 기운이 외부와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해 나간다고 보았다. 이처럼 만물을 “개방적 주체”(2002가:443)라고 인식하는 데에는 ‘만유내재신론(萬有內在神論, panentheism)’적 성격이 있으나, 동시에 여기에서 모심의 대상인 신(神)을 ‘활동하는 무(無)’나 ‘활동하는 자유’ 정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만물의 외부에 구체적인 주체를 설정하지 않은 채, 그가 생성이라고 부르는 ‘생명적 활동’을 수행하는 존재 정도로 ‘신’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하지만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지하는 비가시적 차원의 기(氣)의 흐름을 강조하면서 지구를 인간을 포함한 만물과 기를 주고받는 소통과 연결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는 ‘생명’을 곧 ‘기’와 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기’는 라투르가 말한 생존층으로서의 가이어나 차크라바르티가 말한 지구시스템과 개념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기의 순환’에서 인간은 외부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서있지 않다는 점에서 김지하의 논의는 차이를 보인다. ‘기’는 인간생명에도 내재해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순환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는 “우리가 자연을 애초에 그렇게 개념적으로 구획된 상태의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2002나:369), 지구와 인간을 분리해서 인식할 대상으로 사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에서 강조되는 것은 지구생명과 인간생명이 공유하고 있는 ‘기의 흐름’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 복구 과정에서 그는 구체적인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윤리적 차원의 인식전

『동경대전』을 본격적으로 역주하며 의미화한 김용옥도 『동경대전(2)』에서 「주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김용옥 2021:210-218).

19) 이재복(2023:26)은 ‘활동하는 무’의 특성을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 모두를 포괄하는 활동으로 보고 정체공능(整體功能)의 차원으로 인식한다.

환을 강조한다. 인간은 다만 지구 자체의 치유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간생명의 영성을 성찰하는 윤리적인 태도를 강조할 뿐이다. 그 결과 ‘모심의 윤리’는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과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된다. 특히, 기(氣)를 ‘활동하는 무’나 ‘활동하는 자유’라고 보는 인식은 거대한 미지의 것에 대한 감각을 표현한 말로(이기상 2010:317), 이것이 지구와 관련지어 논의될 때는 자기치유력을 가진 지구이자 자기갱신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 이처럼 그는 지구를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김지하가 러브록의 가이아이론에서 치유와 갱신의 역량을 지닌 지구라는 관점을 수용한 결과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식을 인간생명에도 적용하면서 개념적 전일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김지하가 ‘기의 흐름’으로 지구를 인식하는 관점에는 이 분법에 대한 극복의지가 내재해 있다. 그는 ‘기’가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정신과 육체의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통합적 생명 활동을 해명할 뿐만 아니라 물질과 영성의 통일성 또는 동시성을 밝혀 유물론과 관념론의 이원론적 분열을 애당초부터 넘어”(2003:93)서는 통합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지하가 ‘기’라는 개념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 유물론과 관념론 등으로 나누어진 이원론 극복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일종의 전도된 인간주의로 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물질성을 인간적 상상으로 전유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김지하의 지구 인식은 지구의 일부분을 미지적인 것으로 남겨두는 라투르나 차크라바르티의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김지하의 인식은, 라투르가 인간이 ‘지구에 묶인 자’라는 자각을 통해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그 역량을 사물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나, 지구를 가지적이면서 비가지적인 것이 혼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지구를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차크라바르티의 방식과는 일정한 거리를 보인다. 이러한 ‘거리’는 결국 지구를 인

간과 분리해서 사유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결부된다. 김지하는 지구와 인간을 비분리의 일체화된 것으로 보고, 지구를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를 인식함에 따라 인간의 윤리가 고스란히 지구윤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지하에게는 물질을 탐구하는 과학도 “본디 천도(天道)와 천덕(天德)에 대한 탐구와 체현이므로 곧 도덕 자체”이다(2003:90). 따라서 과학적이든 인문적이든 지구를 인식하는 방법은 인간의 윤리와 서로 다르지 않다고 김지하는 보았다. 이렇게 일원론적인 시각에서 선 그는, 인간이야말로 우주적 변화에 ‘창조적 개입’(2003:152)을 수행하는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면서 윤리적 생태주체를 호명한 것이다.

IV. 맺음말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가 가공할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을 성찰적으로 사유하는 흐름은 포스트휴머니즘과 인류세 담론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문학이 더 이상 인간사회만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현실이 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지구에 대한 새로운 사유로 결집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반세기 전에 제안된 가이아이론에서부터 예견된 바이기도 하다.

“어느 날 잠을 깬 인류는 그동안 가이아에게 주어졌던 책임이 돌연 자기에게 부과된 것을 알아채고 그 순간부터 지구 시스템을 보살피는 임무가 자신들이 영원히 벗어버릴 수 없는 직업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 홍욱희 역 2023:255)

러브록이 예견한 바대로 우리는 지구를 보살피는 임무가 직업이 되어가는 세계를 살아가는 중이다. 김지하는 일찍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

간을 인류문명사의 대전환기라고 보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모색하는 생명론을 구상하면서, 그 핵심적인 인식에 전지구적 환경파괴에 대응할 수 있는 지구 인식을 담아냈다.

그의 사상형성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지구 인식은 생물생명을 중심으로 하던 생명 인식을 대기, 지질, 무생물 등으로 확장하면서 우주생명으로 개념적 확장을 해나가는 매개적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사유의 확대과정에서 인간, 지구, 우주를 유기적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함에 따라 일원적인 우주생명론을 정립하였다.

김지하에게 지구는 인간과 다른 차원에 놓인 사유의 대상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인간과 연결된 전일적인 관계망 안에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지구 인식은 그의 생명론이 풍류도나 동학과 같은 한국적 사상 전통과 서구의 자연과학적 성과를 결합하고, 여기에 예술미학을 더하면서 구축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세계를 인식했고 이러한 인식 방법이 그대로 지구 인식에도 적용됨에 따라 지구는 인간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간의 개입에 있어서도 사뭇 다른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지하는 인식론적 변화를 촉구하며 윤리적 차원에서 인간 주체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있다면, 라투르는 인간과 지구의 연결점을 보는 새로운 사회정치학을 탐색했으며 차크라바르티는 인간을 지질학적 행위자로 재인식하고 생물학적 시간 안에 갇힌 우리의 인식을 장대한 지질학적 시간으로 확대하면서 거주가능성을 제고하는 ‘행위(action)’가 무엇인지를 숙고하자고 제안한다. 이처럼 개입의 정도나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구와 인간을 일원론적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함께 이성과 감성의 차원에서 지구를 인식하느냐 여기에 영성을 포함하느냐 하는 입장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그렇다면 김지하가 ‘모심의 윤리’와 그 구체적 실천인 ‘살림의 윤리’로 제안한 지구윤리가 인류세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를 영성적인 존재이자 만물과 교감하는

관계론적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는 가지적(可知的) 차원에서만 지구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구를 연속된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고 영성을 내재한 생성존재로 보려는 관점이 담겨 있다. 지구의 물질성에 영성을 부여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구를 인식하면서 지구를 모시고 섬기는 윤리적 태도는, 그 자체의 사실성이나 실천성 여부를 떠나서 지구에 대한 인식을 갱신하고 현재의 위기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인식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비가지적인 차원을 전제하고 지구를 대상화하는 방식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간의 윤리적 의무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지하의 지구 인식은 오늘날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구의 포스트휴머니즘적 사유나 인류세 담론의 문제의식을 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론적 현재성을 풍부하게 담지하고 있다. 특히 그의 생태영성론적 지구 인식은 분과 중심적 시각을 극복하고 융합과 통합의 시각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진다. 이성과 감성에 영성을 결합시키면서 그는 사상과 과학과 종교를 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구 인식의 논리화 과정을 생명론의 전개와 연결시켜 살펴보고 이를 라투르와 차크라바르티의 인식과 비교함으로써 김지하의 지구 인식이 가지는 변별점을 규명해 보았다. 향후 김지하의 지구에 대한 사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의 시(詩)에서 지구 인식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1. 1차 텍스트

- 김지하(1996), 『생명과 자치』, 솔.
김지하(2002가-다), 『김지하전집』 1-3, 실천문학사.
김지하(2003), 『생명학』 1-2, 화남.
김지하(2005), 『흰 그들의 미학을 찾아서』, 실천문학사.
김지하(2010가), 『흰그늘의 산알소식과 산알의 흰그늘 노래』, 천년의시작.
김지하(2010나), 『산알 모란꽃』, Poetics시학.

2. 참고논문 및 저서

- 김난희(2023),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통해 본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적 언어」, 『기호학연구』 74, 한국기호학회, 41-70.
김지하시인추모문화제추진위원회 편(2022),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생명을 열다』, 모시는사람들.
김용옥(2021), 『동경대전(2)』, 통나무.
김환석 외(2020),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이성과감성.
문순홍(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손민달(2008), 「한국 생태주의 문학 담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이기상(2010), 『글로벌 생명학』, 자음과모음.
이명호(2024), 「기후정치의 실패와 생태시민성: 토마스 베리의 인간 재창조를 중심으로」, 『종교와 사회』 12-1, 한국종교사회학회, 1-32.
이재복(2023), 『김지하가 생명이다』, 도서출판b.
이형권(2000), 「김지하의 생명시와 생명시론—생태시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11-234.
유선무(2021), 「신유물론 시대의 문학 읽기」, 강우성 외, 『포스트휴머니즘의 쟁점들』, 갈무리.
정주아(2004), 「‘밥상의 공동체’: 1980년대 김지하의 사회생태론 수용과

- 민중생태론의 구상』, 『국어국문학』 208, 국어국문학회, 113-150.
- 조성환·허남진(2022), 「인류세 시대 ‘지구’ 담론의 지형도 : Globe, Earth, Gaia, Planet」, 『문학 /사학/철학』, 69, 한국불교사학회, 212-230.
- 조지형·김용우 편(2010), 『지구사의 도전』, 서해문집.
- 황경해(2025), 「김지하의 ‘흰그늘-산알’ 사상과 인류세 메타포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90, 한민족문화학회, 45-76.
- 홍용희(2007), 「김지하의 시세계와 생태적 상상력」, 『문학과 환경』 6-2, 문학과환경학회, 77-90.
- 가야트리 스피박(2017), 태혜숙 역, 『지구화시대의 미학교육』, 북코리아.
- 시노하라 마사타케(2022), 조성환 외 역, 『인류세의 철학』, 모시는사람들.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2023), 이신철 역, 『행성시대 역사의 기후』, 에코리브르.
- 브뤼노 라투르 외(2010), 홍성욱 역, 『인간·사물·동맹』, 이음.
- 브뤼노 라투르(2021가), 박범순 역,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이음.
- _____ (2021나), 김예령 역,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음.
- 얼 C. 엘리스, 김용진·박범순 역(2021), 『인류세』, 교유서가.
- 제임스 러브록(2023), 홍육희 역, 『가이아』(개정증보판), 갈라파고스.
- 클라이브 해밀턴(2018), 정서진 역, 『인류세』, 이상북스.
- Bruno Latour(2017),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Facing Gaia :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Polity Press.
- Timothy M. Lenton & Bruno Latour(2018), “Gaia 2.0”, Science, vol. 361.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ence.aau0427>(검색일자 : 2025년 10월 25일))

❖ ABSTRACT

Earth Consciousness as Reflected in Kim Ji-Ha's Philosophy of Life and Its Significance

Lee, Sun-Hee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Kim Ji-ha's life philosophy, focusing on his reflections on the Earth and interpreting the Earth consciousness embedded within, along with its significance. It examines how Kim's Earth consciousness is articulated into a coherent logic within the framework of his life thought. By comparing it with the perspectives of Bruno Latour and Dipesh Chakrabarty, the study clarifi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Kim's understanding of the Earth.

Kim Ji-ha's life philosophy, which deepens ecological thinking, reveals several forms of Earth consciousness. First, Kim expands his ethical horizon beyond a morality confined to human life, embracing a view that encompasses cosmic life. In this epistemic widening, consciousness of the Earth becomes a crucial medium of thought. He creatively reinterprets Gaia theory, which views the Earth as a living organism, and by conceptualizing life as the flow of gi (氣), he transforms the Earth from a mere physical object of knowledge into a cultural and discursive concern. Furthermore, by incorporating an Earth-system engineering perspective, he broadens a viewpoint that had previously remained within human society, deepening it into a cosmic life philosophy. As a result, through a re-conceptualization of humanity, he emphasizes an Earth ethics of Mosim (serving with reverence) and

Salim (enlivening). In contrast to Latour and Chakrabarty, who perceive the Earth and humanity as separable entities, Kim regards the Earth and humanity as relational beings bound in an inseparable nexus. He positions the Earth as an interlocutor of resonance and communication, underscoring the ecological-ethical subject.

Kim Ji-ha's Earth consciousness possesses a discursive contemporaneity, anticipating the problem-consciousness prevalent in posthumanist debates and Anthropocene discourse. It is particularly future-oriented, recognizing the Earth through a lens of convergence and integration—overcoming disciplinary compartmentalization by combining reason, emotion, and spirituality, while fusing thought, science, and religion. His approach to the Earth as a living being—granting spirituality to its materiality and seeking to Mosim and serve it—holds significant value as an ecological ethic. Regardless of whether its factuality or practicability can be fully validated, it renews the understanding of the Earth, which has often been treated solely as an object of reason and science, and calls for an active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aimed at alleviating the current crisis.

Keywords: Kim Ji-Ha, Earth Consciousness, Bruno Latour, Dipesh Chakrabarty, Earth ethics, Mosim(serving with reverence), Salim(enlivening)

■ 논문투고일 : 2026. 01. 10

■ 심사완료일 : 2026. 01. 31

■ 게재확정일 : 2026. 02. 09

